전문안내인 배치
사찰별 책자 발간

문화서비스 강화

조계종 포교원 '문화재사찰 포교방안' 발표

사찰문화재 관람료를 내는만큼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람료 징수 저항감을 감소시킴은 물론 나아가 입장객에 대한 포교방안이 제안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효종)이 3일 관람료사찰주지회의에 제출한 '문화재사찰 포교방안'에는 입장료 저항감 해소와 사찰의 수행분위기 유지, 나아가 입장객 상대의 포교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돼 있다.

포교연구실이 제안한 여러 방안의 주요내용은 사찰을 찾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다가가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불교의식에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사찰 참배객들에게 스님이 가람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선 관람객 안내시스템의 도입, 실시 및 전문안내인 배치에 비중을 두고 있다. 아울러 비불자 관람객 대상의 포교법회를 개설, 직접 불교행사에 참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입장권에 사찰의 연혁과 창건 설화, 당우의 배치, 문화재 설명, 불교상식, 사찰예절 등 사찰과 불교관련 기본정보를 수록한 소책자로 개발하자는 아이디어도 담았다. 비용은 관람객의 편의시설 이용 수익금과 기업체 광고유치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포교원의 이같은 제안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싸움'에서는 이기더라도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불교가 될 경우 결국 '이기고도 진 싸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포교연구실장 효종스님은 "'방안'은 포교원에서 제출했지만 총무원은 물론 각 관람료사찰과 관람료위원회 등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업으로 종단전체의 역량을 투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교연구실의 제안은 국민들의 불만을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해소하겠다는 적극적인 대처가 될 수도 있다.

분리징수 사태가 어떤 형태로 마무리되든 이미 이 사태는 사회이슈화되었고, 국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은 불교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불교와 국민들의 거리좁히기 방안의 하나로 포교연구실의 제안은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128회 임시 중앙종회가 6일부터 성원미달되며 자동 폐회됐다. 사진은 8일 오전10시 현재 텅빈 종회회의장.

중요안건 토의 못한 '부실종회'

조계종종회 유회거듭 폐회

조계종 제128회 임시중앙종회가 유회를 거듭하다 회기 마지막날인 9일오전 10시 자동폐회 됨에 따라 당초 상정된 17건의 안건중 6건이 처리되고 나머지 11건은 11월 정기종회로 이월됐다.

회기 이틀째인 5일 속개된 종회는 '중앙승가대 이전에 관한 건'과 관련 용마건설의 부도에서 동림건설의 계약체결까지의 과정과 책임을 따지고 종무감사에서 교육분과위와 종정감사 특위가 정밀감사해 정기종회에서 보고키로 했다. 또 사찰방화와 수행환경권 침해와 관련된 집행부의 종합보고서를 요구 정기종회에서 대책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종헌개정특위' 의견 양분
의도적 성원미달 '의혹'

그러나 종회는 제7안건인 '종헌 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둘러싸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다 일부 의원스님들의 퇴장으로 유회됐다. 이날 종회에서는 "개혁회의 이후 3년여간 시행되어 온 종헌에는 현실적으로 손질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스님들과 "개혁정신의 지주인 종헌이 집행부의 한 만기도 넘기지 않고 고쳐진다는 것은 개혁정신의 후퇴라 볼 수 있다"며 종헌 개헌 논의를 반대하는 스님들의 팽팽한 논쟁으로 가열되기 시작했다. 종헌 개정의 초점은 총무원장의 겸지금지 조항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헌 개헌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토의가 끝난후 의장단이 표결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정하기로 함에 따라 10여명의 의원스님들이 종회석을 퇴장해 종회는 6일 속개키로 했다. 그러나 6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정족수의 과반수인 42명에서 7명이 모자라는 35명만이 참석 유회가 불가피해졌다. 이날의 유회는 8일과 9일에도 그대로 이어 졌다. 제128회 종회의 유회에 따른 자동폐회로 관심을 모았던 '불교방송사태 진상조사 특위 활동 보고의 건'과 '불교중앙교원 5천만원무통장 입금 진상조사위 보고의 건' '선본사 직영사찰 해제 요청의 건' '보리수 마을 지원요청및 활성화 방안의 건'등은 입도 못 떼어 본채 차기 정기종회로 넘어갔다. 때문에 이번 종회의 유회가 '종헌 개정특위 구성'과 관련한 의견차이에서 온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조심스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종회의 유회는 미묘한 사안을 앞두고 '시간벌기'를 위해 의도적으로 성원미달을 조성하는 전형적인 방편이었다는 비난이 거세다. 종회는 산적된 종단현안과 개혁의지의 지속이라는 목전의 과제가 장기적으로 낮잠을 자게 된데 대한 종도들의 실망을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연태 기자

지난 8년간 청주불교실업인회(회장 김현배) 주최로 봉행되어 온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제'가 올해 처음 청주시민 차원의 추모대제로 성황리에 봉행됐다〈관련기사 5면〉. 6일 '청주성탈환 405주년 추모대제'가 열린 청주중앙공원에서 청주성탈환추모사업회 초대회장을 맡은 김현배(중부건설 회장·50)회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수요 인터뷰

청주불교실업인회 김현배 회장

영규대사 추모제 시민축제로 승화
"호국불교 인식제고 노력 결실"

-올해 처음 영규대사 추모제가 학술제 연등대법회 기념공연 사진전시회 등 시민문화행사로 확대됨으로써 지역사회에 호국불교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고 봅니다.

▲청주불교실업인회와 청주청원불교연합회(회장 원봉) 등 종교·시민단체들은 자발적인 성금모금으로 올 405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인 문화행사로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호국불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불교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심었다고 자평합니다.

-지난 90년 9월 7일 '영규대사 추모사업회'를 발족시킨 이래 매년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추모제의 의의는.

▲영규대사가 이끈 의승군 1천명과 의병에 의한 청주성탈환(1592)이 임란 최초의 승전으로서 가히 기념비적인 전투임에도 불구, 불자들은 물론 시민들이 이를 제대로 인식치 못하고 임란전사(戰史)에서 조차 소홀히 취급되고 있어 이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청주성탈환 기념일 행사는 그간 영규대사 추모제 등 교계의 단순한 의식행사로 치러져 오다 청주성 탈환정신을 시민정신으로 부각시키자는 시민단체들의 여론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행사를 다양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계도 승병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청주불교실업인회의 주요활동은.

▲지난 88년 9월 10일 창립이래 매달 구역별로 가족법회와 사찰 순례법회를 열면서 신행을 다지는 한편 10여개 지역 신행단체와 함께 거사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영규대사 추모제는 80여명의 회원들이 매년 약 1,500만원의 예산을 마련, 심혈을 기울여 봉행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보다 적극적인 신행을 펼칠 젊은 실업인들로 청년부를 조직,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돕기 등의 봉사활동을 펼칠 생각입니다. 청주성탈환 기념사업에도 더욱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해 청주시 최대의 시민 문화행사로 가꿀 예정입니다.

청주=김재경 기자

목어

테레사 보살

"더 이상 숨을 쉴수 없어…"

테레사 수녀가 타계하던 5일 밤 캘커타에는 장대비가 내렸다.

하늘이 울었듯 땅에서도 슬퍼했다.

우리는 왜 나라와 종교를 초월하여 테레사 수녀의 별세 소식에 옷깃을 여미며 애도하는가.

'빈자의 어머니' '자비의 천사' '위대한 어머니' '시들지 않는 예수의 작은 꽃' '사랑의 천사' '사랑의 표본' '영원한 성모' '20세기의 성녀' 테레사 수녀를 지칭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그 답을 볼 수 있다.

그는 이 세상 모든것을 초월하여 걸림없이 살았다. 오직 사랑을 실천하는 자비의 화신이었을 뿐이다. 그는 보살이었다. 테레사 수녀는 무소유였으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생명의 감로수 였다.

"어느날 꿈에서 내가 천국의 문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내게 지상으로 돌아가라. 여기에는 빈민굴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것 저것 재지 않습니다. 그저 줄 뿐입니다."

"나는 모든 인간에게서 신을 봅니다. 내가 나환자의 상처를 씻을때 예수를 돌보는 느낌을 갖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니라 체험에서 나온 결실의 열매였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연필'이면서 두건을 쓴 지장보살이었고 천수천안을 지닌 관음보살이었다.

그는 부상군인을 치료하는 간호사였고 고아의 어머니였다. 장애인과 에이즈환자 미혼모 매춘여성의 친구였다. 이러한 그의 사랑은 126개국 6백여곳에서 실천되고 있다.

테레사 수녀는 나를 내세우는 '상'이 없었다. 그래서 여래를 친견하듯 예수를 느꼈으리라. 그는 진정한 종교인은 둘이 아닌 하나의 통로에서 만날 수 있음을 입증했다. 해질대로 해져 구멍이 보이는 사리를 입고 보살의 삶을 마감한 성녀 테레사. 그는 우리의 가슴에 살아있다.

자기종교를 내세우고 싶을때, 많이 소유하고 싶을때, 권력이 탐날때, 나누는 일에 망설여질때, 테레사 수녀를 떠올리자.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9월 테마여행 - 무량사 · 성주사지

무량으로 이어지는 백제불심

부여 무량사는 신라말 범일국사가 창건한 사찰이며, 보령 성주사(지)는 선문구산(禪門九山) 중의 하나입니다. 모두 신라때 이름난 고찰이지만 여기에는 백제불교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무량사 5층석탑(보물 제185호)은 백제탑인 미륵사지 석탑과 정림사지 5층석탑을 본따 만든 백제계 석탑입니다. 백제가 멸망하고도 수백년이 지난 고려때 백제의 옛 땅에 세워져 백제인들의 문화와 불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주사지는 백제 법왕 때 창건된 오합사(烏合寺)로 백제 멸망 직전에 붉은 말이 나타나 울면서 백제의 멸망을 예시할 정도로 유명한 사찰이었습니다.

현재 무량사에는 보물 제356호로 지정된 극락전에 모셔져 있는 동양최대의 아미타삼존불을 비롯 석등, 당간지주, 김시습 부도 등이 남아 있으며, 성주사지에는 최치원의 사산비명(四山碑銘) 중의 하나인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국보 제8호)를 비롯 석탑 4기, 석불, 석불대좌 등이 번성했던 옛 모습을 짐작케 합니다.

하늘은 높고 길가의 코스모스와 누렇게 익은 벼이삭이 춤추는 가을의 한가운데에서 우아하고 격조높은 백제미를 창조했던 백제인의 불심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참가 안내

◇출 발: 9월 28일(일) 오전7시 · 조계사 앞
◇회 비: 3만원(도시락 각자 지참)
◇안 내: 임병고(백제사적연구회장)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한주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양약품

인 사 말 씀

大韓佛敎 曹溪宗 名譽元老이신 聖林堂 月山大宗師 永訣式을 佛紀 2541年 9月 10日(陰 8月 9日) 宗正猊下께서 친히 參席하신 자리에서 敎團의 元老會議葬으로 嚴肅히 奉行하였습니다.

公私간 多忙 하심에도 不具하시고 參席해 주신데 대하여 일일이 찾아뵈옵고 人事드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慌忙中 우선 지면으로 심심한 感謝의 人事를 드리오니 널리 諒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四十九齊 案內 ◆

■ 일 시 : 불기 2541년 10월 24일(음9월 23일) 10시 30분
■ 장 소 : 토함산 불국사
■ 문의전화 : (0561)746-9912～3

불기 2541년 9월 12일

聖林堂 月山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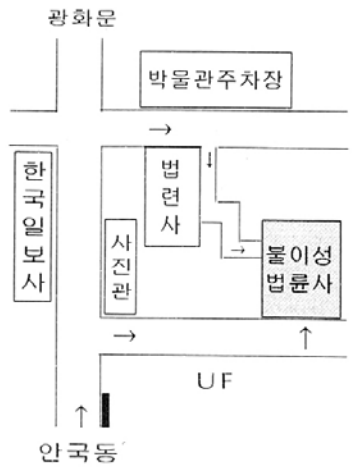
장의위원장 혜 암 합장
호 상 벽 암 합장
지도위원장 월 주 합장
집행위원장 설 조 합장
문중대표 범 행 합장
문도대표 성 타 합장

덕 암 대 선 사
고승평전「원융불교의 실천」출판기념 법회

- 초대의 말씀 -

귀의 삼보하옵고
덕암 안홍덕 큰스님의 사상의 핵심이 담긴「원융불교의 실천」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덕암 큰스님의 출가 70년 및 탄생 85년의 생애를 되돌아 보는 이 뜻 깊은 법회에
다같이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 시 : 1997년 9월 28일 (음 8월 27일)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 종로구 사간동 112, 불이성 법륜사 큰법당
● 탄생 85년 및 고승평전 출판 기념 법회 (10:30 ~ 13:00)
◇ 출판내용 : 원융불교의 실천(덕암 대선사 출가 70년 및 탄생 85년을 총정리한 고승평전 425쪽)
◇ 특 강 : 대승사상과 원융불교, 오형근 교수 (전 동국대 불교대학장)
: 현대포교와 사찰운영법, 한정섭 법사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이사장)
▣ 기념품 증정(참석자 전원)
1. 원융불교의 실천 1권
1. 불교춘추 7호, 1권(태고보우국사 선차 탐방기)
1. 특강 자료집 1권



(사) 대륜불교 문화연구원
덕 암 화 상 문 도 회
원장 · 회장 무공 서갑생